



'통합민원봉사실' 개소 1주년 맞아 전주인 서구청장이 광주은행 비즈니스센터지점 1일 명예 지점장으로 나서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광천동 버스터미널 앞 교통체계 개선사업

# 석달만에 뜯어고친다

## 차량 흐름 되레 악화...2억원 추가 투입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완료한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주변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대한 보강공사를 3개월 만에 추진키로 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사업비 2억원을 들여 터미널 3번 출구 일대(유스퀘어 앞)에 대한 교통소통 개선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난해 12월 2억9천만원을 투입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추가 개선사업을 통해 택시와 자가용 등이 뒤엉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터미널 주차장 입구를 이전하는 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는 교통선이 시민들의 야간 보행에 불편할 뿐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LED 전광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택시 등의 진·출입로가 분리되지 않아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던 터미널 3번 출구 주변 210m 구간에 시내버스 차로와 터미널 이용객 정차장을 설치했다. 또 택시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10차로 갖 길에 있던 택시 승강장을 터미널 안쪽 5번 출구 정류장으로 옮겼다.

시내버스는 7차로를, 마중객 차량은 5분에 한해 8~10차로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택시를 터미널 안쪽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해 교통량을 분산

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에도 터미널 주차장 진·출입 차량과 택시 및 마중 차량과의 뒤엉킴 현상은 여전했고, 인도에서 3차로 건너 설치된 버스승강장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불평도 줄지않고 있다.

특히 편도 10차로를 교통선으로 분리한 뒤 터미널 앞에서 운암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과 교원공회관 쪽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도로에서 뒤엉켜 주말과 휴일에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주변 교통체계의 경우 주중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주말에 차량들이 급증하면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다"며 "주말과 휴일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보강공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10월15~19일 광주 김치축제 중외공원 일대서

2008 광주김치축제가 오는 10월15~19일까지 5일 동안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김치축제 개최 입장을 확정했다. 시는 그동안 김치 시식, 판매 등으로 진행됐던 단순 행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부터는 '오(五感)감박물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보강키로 했다.

'오감박물관'은 시각, 청각, 미각 등 오감을 통해 김치의 맛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지는 가족형 체험공간이다. 또 다양한 김치를 직접 담가볼 수 있는 각종 체험공간들이 배치, 운영된다.

시는 또 축제현장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요원을 배치키로 했다. 또 김치를 나열하는 방식의 행사를 탈피하기 위해 김치 테마음식점 및 명가음식점을 엄선, 전시장에 입점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으로 행사기본 계획을 확정할 뒤 오는 5월경 김치축제 추진위원을 발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김치의 판로를 개척하고 고품질화를 유도하는 한편, 김치축제가 광주시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송일중·고 설립 100주년 수피아여중·고

파란 눈의 외국인 선교사가 일제시대 광주지역 기독교 선교를 위해 세운 두 학교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다.

유진 벨(Eugene Bell·1868~1925·한국명 배유지) 선교사가 광주 남구 양림동에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를 설립한 것은 1908년, 각각 정년 30명, 20명의 조그만

학교의 전통을 쌓고 있고 송일중·고는 운암동을 거쳐 일곡동으로 옮겨 명문으로 재도약을 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총동창회와 함께 다양한 100주년 관련 기념 행사를 준비했다.

◇송일중·고=송일중·고는 지난 2월 총동창회가 제주도 설악산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 등반대회

문들이 100주년 기념 북한 의료봉사를 준비했고,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송일인의 밤'이 이어질 예정이다. 5월 중에는 학생과 동문이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열리고, 5월22일은 '100주년 기념 봉사체현의 날'로 정해 의사 동문들이 무료 의료봉사를 펼치는 가 하려, 학생들은 주변 환경 정화활동을 갖는다.

기념동산과 기념탑을 조성하기 위해 총동창회가 모금활동을 진행 중이며, 문화예술회관에서 '100주년 기념 음악회 및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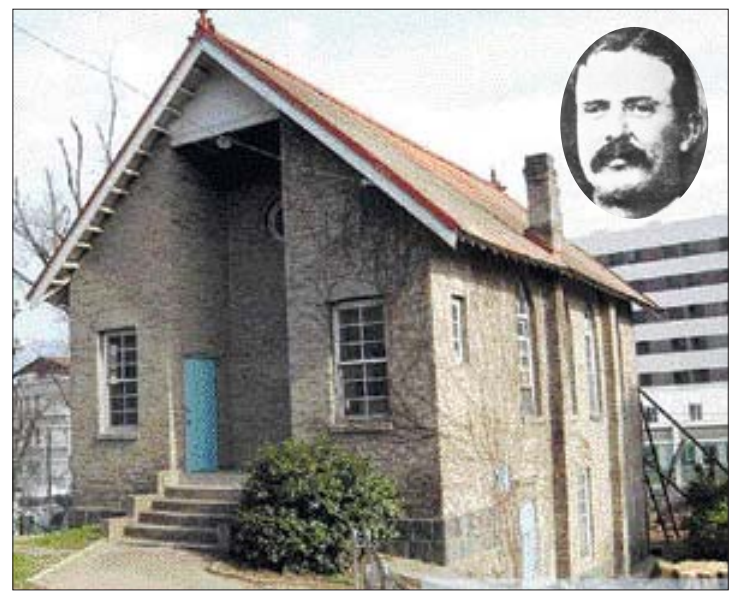
◇수피아여중·고=수피아여·중고는 10월10일 교내 대강당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하루 앞선 9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야제를 갖고 건학 100년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계획이다.

전시와 행사 등 두 분야로 나눠 100주년 기념 행사를 마련한 수피아여중·고는 역사기념관 건립을 준비 중이며 '사진으로 본 수피아의 어제와 오늘' 전시회도 진행되는 등 학교 역사를 집대성한 '수피아 100년사'가 편찬되고 기념조형물과 홍보영상물도 제작 중이다.

지난 1일에는 지역 최초로 3·1절 만세운동 재연행사에 학생 및 교직원들이 참가해 3·1운동의 의미를 다졌다. 또 음악과 무용 분야의 종합예술제를 개최하고 예술심포지엄, 교양강좌를 마련해 100주년을 기념할 예정이다.

또 100주년 기념 우표 및 우편엽서, 기념품을 제작하고 KBS TV 교양심 퀴즈프로그램인 '골든벨'을 유치해 개교 100주년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자녀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의료봉사를 하는 등 행사도 준비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일제시대 선교사 유진 벨이 세운 동창회 중심 다채로운 기념 행사



송일학교와 수피아학교 설립자인 유진 벨(안)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 수피아여고 교정에 세워진 배유지 기념관. (수피아여고 제공)

학교였다. 벨 선교사는 교육사업을 통해 국내 선교와 계몽에 앞장섰다. 수피아와 송일학교는 이후 3·1절 만세운동에 나서 독립운동의 참병이 됐기 하, 1937년에는 신사참배 거부로 일제로부터 폐교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100년이 흐른 지금, 수피아여·중고는 양림동 교사를 고수하며 여

를 얻 것을 시작으로 의료봉사, 음악회 등을 마련했다.

개교기념일(4월1일) 하루 전인 3월31일 송일중·고 강당에서 열리는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기념 독립선언 재연행사가 이뤄지고 학생과 동문들이 준비한 노래, 무용 등 공연도 준비했다. 4월11~14일에는 의사 출신 동

### 광주 지하철 2구간 내달 11일 개통식

광주 지하철(도시철도) 1호선 2구간(상무역~옥동차량기지, 8.14km) 개통 시기가 총선 직후인 다음달 11일로 잠정 결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12일 "선거법 저촉 논란으로 미뤄왔던 지하철 개통식을 총선 직후인 다음달 11일경 갖기로 했다"며 "이달 말까지 진행중인 전동차 장치 위치 미세 조정 등 영업시운

전이 이상없이 마무리되면 예정대로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구간은 현재 1호선 1구간 종점역인 상무역에 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마복)~공항~송정공원~송정리~도산~평동 등 6개의 정거장이 신설되고 옥동차량기지가 추가됐다. 이는 현재 운행중인 1구간(상무역~용산차량기지, 11.96km)과 연결돼 지하철

1호선이 완전 개통된다.

동구 용산 차량기지~광산구 평동까지 1호선(연장 20.1km, 사업비 1조6천444억원) 운행에는 33분이 소요돼 시내버스(80분)보다 47분 단축된다.

1호선의 완전 개통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고 혼잡 비용을 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구간 개통에 대비 10일부터 선로와 6개 정거장, 옥동차량기지 등 공사 잔재물을 제거하는 등 시설물 일제 대청소에 들어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U대회 광주 유치 온라인 응원 후끈 광주시 블로그 격려 열기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유치'를 지원하는 온라인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다.

광주시가 개설한 'U대회 광주 유치지원 홍보 블로그(http://2013gwangju.tistory.com)'에는 개설 10일째인 12일 현재까지 네티즌 1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온라인 응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광주 U대회 유치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광주도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할 때가 됐다"는 등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또 한 네티즌은 U대회 유치에 힘을 모으기 위해 개인 블로그(http://universiade.tistory.com)를 개설, 온라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네티즌의 반응 때문에 'U대회 광주 유치지원 홍보 블로그'는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 등에서 키워드 검색용어 상위에 랭크되는 등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시는 2013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위원회 홈페이지를 국문, 영어, 불어 등 3개국어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스트릭스' 국민보건 캠페인**

**혈전, 혈관의 적!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스트릭스**